

개발과 이슈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촉진 관점에서의
KOICA ODA 활동방안 고찰

세계화의 진행, 외교환경의 변화, 정보혁명 등의 현상을 겪으면서 외국 국민과 사회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한 국가의 활동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역시 소프트파워 및 스마트 파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범정부적 차원에서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공공외교법 제정 및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해 나가고 있다.

공공외교의 중요한 속성인 소프트파워의 특징을 고려할 때 KOICA가 수행하는 여러 활동은 다양한 측면에서 공공외교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공외교 관점에서의 ODA 역할 및 선진공여국의 시각을 살펴본 후, KOICA의 주요 사업 및 활동내용이 어떻게 공공외교 활성화와 연계 가능한지, 향후 어떤 부분을 더 고민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보고자 한다.

한국국제협력단 ODA 연구·정보센터 송수전

I. 서론

최근 여러 국가들이 흔히 국가 간 ‘매력경쟁’으로 일컫는 ‘공공외교’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9/11 테러사건 발생을 계기로 소프트 파워¹⁾에 대한 관심이 재조명되고, 국제정치, 안보, 경제 환경의 변화와 함께 인터넷의 대중화, 스마트폰의 발달, SNS 등 새로운 정보 제공 매체 및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달로 인해 수평적이고 쌍방향적인 교류가 증대됨으로써 외교영역의 확대 및 주체의 다각화되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공공외교(Public

1) 외교부 공공외교 포털에서는 소프트파워를 “소프트파워(Soft Power)는 군사적 개입, 강압적 외교, 경제제재 조치 등의 물리적 힘으로 표현되는 하드파워(Hard Power)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음.

Diplomacy)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국제적 트렌드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교부의 경우 공공외교를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²⁾”으로 정의하면서, 정무외교와 경제외교, 공공외교를 3대 축으로 하는 스마트파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정부의 공공외교 정의를 기반으로 할 때, KOICA가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 및 활동이 많은 부분에서 공공외교와 접목되고, 향후 연계성 강화 및 활성화 가능성도 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그 역할을 더욱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공외교의 등장배경과 정의 및 국내외 논의 동향 ▲해외 주요 선진공여국의 시각을 포함한 공공외교와 개발협력간의 관계 ▲한국의 공공외교 정책 현황에 기반한 KOICA 사업과 공공외교와의 관계 및 효율적 접목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공공외교란 무엇인가?

1. 공공외교 개념의 등장 배경

공공외교 개념은 냉전시대였던 1960년대 미국의 직업 외교관인 에드먼드 쥘리언(Edmond Gullian)에 의해서 처음 제시되었으며, 공공외교를 “대외정책의 형성과 정책에 있어 대중의 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활동”³⁾으로 정의하였다. 전통적 외교 개념이 상대국 정부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해 상대국 정부 뿐 아니라 민간 대중을 주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공공외교는 냉전구조 하에서 하드파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해당국의 여론을 움직이려는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20세기의 공공외교가 2차례의 세계대전과 동서냉전 프레임을 배경으로 등장했다

2) 공공외교포털: <http://www.publicdiplomacy.go.kr/introduce/public.jsp> (접속일 : 2019년12월19일)

3) ‘공공외교’라는 용어는 1965년 터프츠 대학교 플래처 스쿨 학장인 에드먼드 쥘리언이 머로센터 개소식에 참여하여 언급한 발언을 통해 처음 사용되었음.

면, 21세기의 공공외교는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특히 9.11 사건을 계기로 하드파워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소프트파워 개념이 재조명되고, 새로운 미디어 매체의 발달 및 민주화의 확산으로 인한 비국가 행위자의 외교 주체로 등장하면서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⁴⁾

2. 공공외교의 정의와 개념

공공외교에 대한 개념과 의미는 시대별로도 변천했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쾰리온의 정의를 시작으로, 한스 투치(Hans Tuch)는 “공공외교는 자국의 목표와 현재의 정책 뿐만 아니라 자국의 제도와 문화 그리고 가치, 이상에 대해 외국 수용자들을 이해시키고자 그들과 소통하려는 정부의 조치”(Tuch 1990)로 정의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전직 외교관 존 브라운(John Brown)은 “정보 전달, 교육 그리고 문화 교류라는 세 가지 역할을 수반하는 과정(Brown 2002)”으로 정의하였고, 조셉 나이(Joseph Nye)는 “하드파워의 영역을 넘어서 강압이나 위협 또는 회유와 같은 방법이 아닌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정보, 지식 차원의 소통을 주도하는 소프트 파워의 성격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도 공공외교(이상호 2009; Nye 2002)”라고 정의하였다.

기관차원에서는 미국 국무부가 “공공외교란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그것의 목적은 다른 국가의 여론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⁵⁾으로 정의하였는가 하면, 영국 공공외교 전략 위원회(Public Diplomacy Strategy Board)는 “관계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외국 국민들이나 기관들이 영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⁶⁾로 언급하였다.

또 2005년 카터 영국 상원의원은 카터 보고서에서 공공외교를 “외국 국민과 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영국의 영향력과 영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영국 정부의 중장기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활동”⁷⁾으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기 언급한 것과 같이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4) 외교부 공공외교 포털

5) https://www.huffpost.com/entry/public-diplomacy-out-for_b_788931 (접속일 : 2019년11월19일)

6)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0506/cmselect/cmfaif/903/903.pdf>(접속일 : 2019년11월19일)

7)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0506/cmselect/cmfaif/1371/137110.htm>(접속일 : 2019년11월19일)

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시대별, 학자별, 기관별로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공공외교의 속성과 목적 및 수단 차원에서 핵심을 정리해보면, “직접적인 소통”, “공감대 확산 및 신뢰 확보”, “국가이미지, 브랜드”, “영향력” 등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외교의 변천〉

외교의 요소	전통외교	공공외교	신 공공외교
주체	정부	정부	정부, 다양한 민간 주체
대상	상대국 정부	상대국 정부 및 대중 (자국민 불포함)	상대국 정부, 비정부기관, 집단, 시민 (자국민 포함)
자원과 자산	하드파워	하드파워 > 소프트파워	하드파워 < 소프트파워
매체	정부간 공식협상, 대화	선전, PR캠페인, 구미미디어	인터넷, SNS 등 디지털 매체 등
관계유형	수평적(정부간)	수직적, 일방향적, 비대칭적	수평적, 쌍방향적, 대칭적
소통의 양식	Closed Communication	Closed Communication	Open Communication

출처: 외교부 공공외교 포털

III. 공공외교와 개발협력

1. 공공외교와 개발협력간의 관계

공공외교의 개념 및 주요 속성을 고려할 때, 먼저 개발협력활동과 공공외교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발협력과 공공외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시각이 존재하나, 기존 논의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개발협력을 공공외교의 일부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원조를 제공하는 활동 자체가 공공외교의 한 형태(Pamment 2016)이며, 공여자와 수혜자간 조정자 역할

8) 외교부 공공외교 포털

로서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 증대, 그리고 원조 활동 과정에서 교육, 교류, 그리고 정보가 중심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Zielinska 2016)

또한 다수 선진공여국들이 ODA를 외교부 전담주도형으로 추진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외교정책 및 공공외교의 일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실질적 차원에서도 주요국들이 공공외교를 통해 국가안보 및 국익 그리고 상대국 국민들의 자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군사협력, ODA, 장학금수여 등이 공공외교 이행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문현미 2014)

이와는 달리, 공공외교의 수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협력 대상국의 발전으로 볼 수 있는데, 대상국 국민의 호감을 얻기 위한 공공외교의 목적이 높은 우선순위가 되면, 홍보성 프로그램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한재광 2017).

유사하게 ODA에 공공외교라는 문제의식을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민감한 주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공공외교 개념 자체가 냉전 시대의 정책을 배경으로 탄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근원은 도구주의적 속성에 기반하고 있는 반면, ODA의 경우 20세기 원조레짐의 발전 과정이 국가의 간섭과 외교정책적 도구화로부터 벗어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김상배 외 2019)

또 다른 관점으로는 개발협력활동 내 공공외교의 속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KOICA의 경우 기관 핵심 업무인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KOICA를 알리고 한국을 알리게 됨으로써 공공외교 증진에의 기여로 연계되는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KOICA 사업을 통해서 현지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개발협력과 공공외교와의 관계 혹은 추진 방식과 관련해 서로 다른 시각과 설명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공공외교 개념이 개발협력의 목적과 역할 차원에서 부합되는 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아 두 영역간의 교차점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공공외교와의 연계성 강화 맥락에서 KOICA의 다양한 사업 및 활동의 방향을 고찰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2. 공공외교 관점에서의 ODA의 역할

KOICA가 수행하는 ODA를 공공외교 관점, 특히 21세기의 신공공외교 관점에서 바라볼 때, 기능적인 면에서 그 역할은 다층적이고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ODA는 신흥공공외교의 주요 속성인 소프트파워와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는데, 예를 들면 ODA 활동은 공여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 등의 긍정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공여국 및 공여국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며, 공여국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킨다. 이러한 측면에서 ODA가 어느 특정 국가에서 공공외교로서 공식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않더라도, ODA가 소프트파워를 매개로 전달되고, 긍정적이고 상호 대칭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형태로 진행될수록 공여국의 소프트파워를 향상시키고 공공외교를 지원하는데 유리한 역할을 할 수 있다.(Zielinska 2016)

3. 공공외교 관점에서 주요 선진 공여국의 ODA에 대한 시각

공공외교 관점에서의 ODA 역할을 함께 고려할 때, 공공외교를 외국 여론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활동과 더불어 민간교류, 보도, 공보, 문화교류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바라 볼 수 있다.(정혜영 2014)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공공외교가 외국 국민에게 다가가고 이들의 마음을 얻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익을 증대시킨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주요 선진 공여국들이 국익 증진 관점에서 어떻게 ODA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미국 정부의 대표적인 대외 홍보 기관이었던 미국공보처(USIA)는 1999년 폐지 후 국무부를 중심으로 그 기능이 개편되었다. 국무부와 함께 기존 USIA의 공공외교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미국국제개발처(USAID)와 국방부도 포함된다.

USAID는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는 많은 수원국 국민들이 9/11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 대해 강력한 반미 감정을 드러낸 것을 인지한 이후 공공외교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인도주의/개발 원조 활동 및 노력에 대해 협력대상국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Sevin et al, 2017)

“미국인을 대신하여 우리는 해외에 민주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미국의 외교 정책을 지원하여, USAID는 미국 정부의 국제개발 및 구호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⁹⁾고 언급한 기관미션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읽을 수 있다. 최근 국무부

9) <https://www.usaid.gov/who-we-are/mission-vision-values>(접속일 : 2019년11월19일)

와 함께 발간한 공동 전략 계획(2018-2022) 문서에서도 “지난 반세기 동안 USAID가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 있어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¹⁰⁾고 밝히고 있다.

〈영국〉

영국은 영국외무성(FCO), 영국문화원(BC), 그리고 BBC World Service가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Snow and Cull 2019) 영국 국제개발부(DFID)도 공공외교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업하는 기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¹¹⁾

DFID는 2015년 전략문서인 『UK aid: tackling global challenges in the national interest』에서 영국원조의 새로운 국익을 정의한 바 있다. 여기서 영국 정부는 ODA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번영을 증진할 뿐 아니라, 이는 전 세계 영국의 무역과 투자 기회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¹²⁾

영국은 또한 해외 원조활동 과정에서 “DFID”를 영국 기관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지난 2009년 영국의 인지도 및 주요 활동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2009년 “UKAid” 로고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영국의 원조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브랜딩을 위해 관련 지침 제정으로 이어졌으며, 동 지침에서 “효과적인 브랜딩은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글로벌 리더로서 영국의 명성을 높이고, 협력대상국 내 원조 대상 주민들과 함께 좀 더 넓은 차원의 청자들에게 원조가 영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제고에 기여한다.”¹³⁾고 밝히고 있다.

〈호주〉

호주는 2014년 공공외교에 관한 별도의 정책문서를 발간하였는데, 여기서 크게 4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성평등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기여에 있어서 호주 정부의 원조 활동에 대한 이해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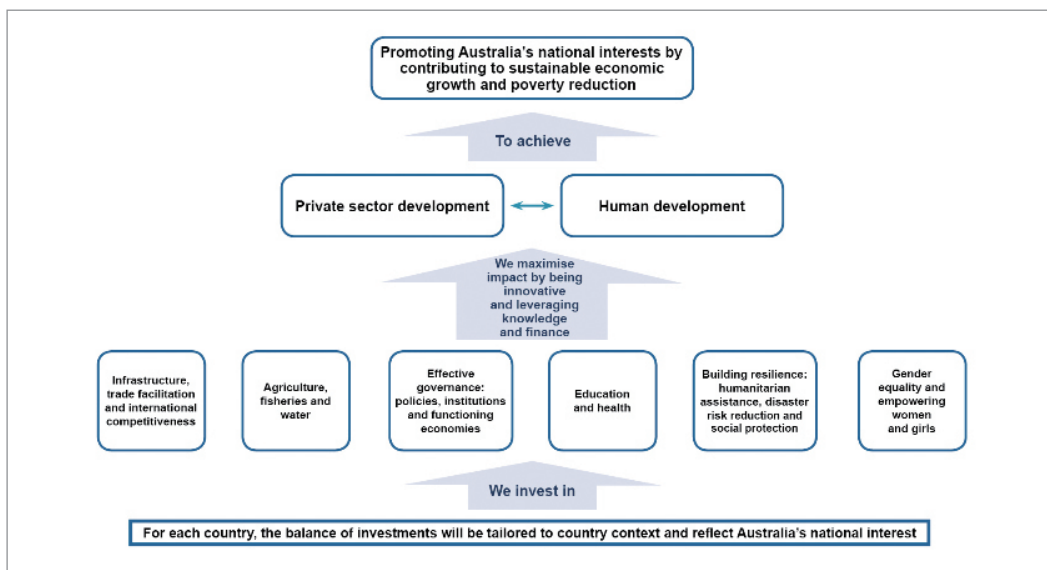
10) https://www.usaid.gov/sites/default/files/documents/1870/JSP_FY_2018_-_2022_FINAL.pdf(접속일 : 2019년12월6일)

11)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72296/6840.pdf(접속일 : 2019년12월6일)

12)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78834/ODA_strategy_final_web_0905.pdf(접속일 : 2019년11월19일)

13)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71876/UK-aid-branding-guidance-May-2018a.pdf(접속일 : 2019년11월19일)

동 정책문서의 5개 세부 목표 가운데 4번째 목표로 “개발협력 분야에 있어서 호주의 역할에 대한 제고”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호주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 대중들의 이해도와 인식을 높이고, 행사, 이벤트, 미디어, SNS 등을 포함한 호주 원조 프로그램의 수혜자 그룹과의 소통 증대를 통해 로컬 커뮤니티 그룹에 대한 아웃리치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호주 개발원조 프로그램 이행은 “원조 프로그램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를 통해 호주의 국익증진을 목적”¹⁴⁾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출처〉 호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스웨덴〉

스웨덴은 빈곤과 억압에 눌린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스웨덴 개발협력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Sida 홈페이지)

앞서 소개한 미국이나 호주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원조를 통해 안보, 정치, 경제 등에서의 국익을 추구하는 내용은 없으며, 인도주의중심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이

14) <https://dfat.gov.au/aid/Pages/australias-aid-program.aspx>(접속일 : 2019년11월19일)

대표적으로 이념적 토대로 삼고 있는 인도주의중심 접근의 경우도 그 배경을 보면 사실상 단순히 순수한 인도주의 정신에 근거해서 발원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이는 북유럽만의 독특한 외교·안보환경에서 철저한 전략화된 국익에서 나온 것으로, 오랜 기간 러시아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북유럽 국가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자국의 독립을 위해 제3의 길을 유지해 오는 과정에서 ODA 전략화를 기존 다른 국가들과 차별성을 인도주의 중심으로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김태균 2017)

2000년대의 경우, 스웨덴 개발협력청(Sida)은 대외 아웃리치 활동 증대를 위해 원조와 개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007년 협력대상국 수를 110개에서 33개로 줄이면서 새로운 개발 원조 전략 구상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이는 어느 특정 국가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유일한 국가 내지는 몇 안되는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함으로써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가시성을 제고함을 목표로 한 것이다.(Seven 2017)

〈일본〉

일본은 패전 이후 본격적으로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공외교를 시작하였고,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자국기업의 경제적 이해와 원조를 연계시킨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및 ODA를 추진하였다. 이후 점진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개발 분야와 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외교를 정책적으로 중요시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시아 지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일본의 국익 차원에서 ODA정책은 더욱 확대되었다.(장혜영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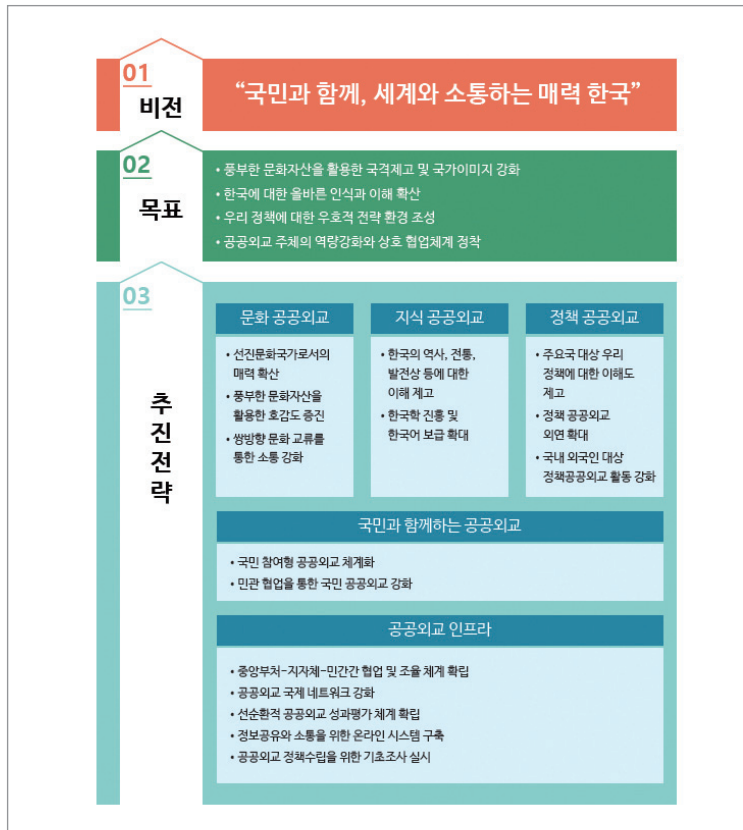
이러한 시각은 2019년 발행된 외교청서(Diplomatic Blue Book)¹⁵⁾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ODA를 포함한 일본의 개발협력정책이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번영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아울러 일본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2019년 JICA 발간 문서인 『JICA Profile』에서도 “일본에게 있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유지하는 것이 결정적이며, 이것이 바로 일본의 국익의 핵심요소¹⁶⁾”라고 언급하고 있다.

15) <https://www.mofa.go.jp/policy/other/bluebook/2019/html/index.html>(JICA(접속일: 2019.12월18일))

16) https://www.jica.go.jp/english/publications/brochures/c8h0vm0000avs7w2-att/jicapofile_en.pdf(접속일: 2019.12월18일)

IV. KOICA와 공공외교

1. 우리 정부의 공공외교 정책 현황



출처: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p11

우리나라도 외교부를 총괄부처로 하여 정부차원에서 공공외교 증진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년을 공공외교 원년으로 선포하고 한국 공공외교 포럼을 창설한 이래 공공외교 대사 임명, 공공외교정책과 신설 및 공공외교 시범사업 추진 등을 거쳐 2016년에는 공공외교법을 제정하고 발효하였다. 이행차원에서는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외교 시행을 도모하고 있다.

공공외교는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며, 그 내용으로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을 목표로 하여,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및 참여 강화, 국민외교 역량 결집을 통해 통합적인 국민외교 체계를 구축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우리 국정비전,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공공외교 추진을 설정하였다.

2. KOICA 사업과 공공외교와의 관계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고려하고 이에 발맞추기 위해 외교부 전략을 중심으로 KOICA의 주요 활동이 공공외교와 어떤 연계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지 등의 방안을 고찰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공공외교의 핵심 개념 및 정의, 그리고 공공외교 관점에서의 ODA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KOICA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공공외교 증진에 부합하는 부분이 많고, 여러 유형의 사업을 포함하여 기 수행중인 활동을 통해 내재화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예를 들어 활동 대상 측면에서 KOICA 사업의 궁극적이고 주요한 수혜대상은 협력대상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민이며, 방식 측면에서 일반 국민을 포함한 정부부처,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키며, 내용 측면에서는 문화, 지식, 정책과 모두 연관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2019년 11월 KOICA가 ODA 사업을 통해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 및 상호 교류 증진 공로를 인정받아 아제르바이잔 정부로부터 공로상을 수여받은 사실을 통해서도 이미 공공외교 차원에서 다각적인 역할 및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KOICA의 활동이 공공외교 차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과 인지도가 높지 않아 그 제고 방안을 고민하고, 공공외교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활동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외교법 제2조 정의에 따라 ‘공공외교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개발협력(ODA) 및 해외 투자유치·경제협력 사업 등이 제외¹⁷⁾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측면에서 공공외교 전략의 목적과 기여 내용을 고려하여, 앞으로 공공외교 사업의 정의를 폭넓게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17)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에 의거, 현재 KOICA가 주요 성과로 제출하고 있는 활동 내용은 한국의 역사, 전통, 발전상 등에 대한 이해 제고 하 교육협력 활성화를 통한 차세대 네트워크 강화의 일환인 ‘귀국연수생 동창회 운영’이 있음.

3. ODA-공공외교 연계성 강화

외교부의 전략 분류를 중심으로 KOICA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공외교 효과 달성 및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사업 및 활동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연계성 강화 방안 및 향후 제언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공공외교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에 의거한 KOICA 주요 사업/활동 분류〉

	문화 공공외교	지식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	국민과 함께 하는 공공외교	공공외교 인프라
주요 연관 KOICA 활동 요소	▲ 우리 인력 파견을 통한 기술·지식전파 ▲ 정책 자문 제공 ▲ 제도 및 인프라 구축 ▲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우리 인력 파견을 통한 기술·지식전파 ▲ 다양한 레벨의 주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 자국민 대상 ODA인식 증진 및 우리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증진	▲ 다양한 레벨의 주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주요 사업 / 활동 예시	- 문화 ODA 관련 국별협력사업 - 글로벌연수사업 - 사무소 협력 - 주요 현지 문화 행사 - 주요 대국민 행사, 대국민 및 현지주민 대상 캠페인 활동	- 국별협력사업 - 글로벌연수사업 - 주요 회의 및 포럼 주최, 행사, 캠페인 활동	- 국별협력사업 - 글로벌연수사업 - 주요 회의 및 포럼 주최, 행사, 캠페인 활동	- 인재양성사업 - 민간협력사업 - 시민참여평가단 - 국민참여형 프로그램 (국민서포터즈, 국별협력사업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 주요 회의 및 포럼 주최, 현지주민 대상 캠페인 활동, 개발협력역사관 운영 등	- 지역 국제개발협력센터 운영 지원 -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회 발족 및 활동
주요 연계 내용	-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확산 - 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환경 조성 -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격 제고 및 국가이미지 강화			-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확산 - 양국민간 교류 및 교감 증대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 한국에 대한 인식 및 호감도 증진	- 공공외교 주체의 역량강화와 상호 협업체계 강화

*주요 연계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로 사업 내용에 따라 유동적으로 고려 가능

〈출처〉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121) 상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인재양성사업

KOICA 봉사단, 자문단, 영프로페셔널 프로그램 등 인재양성사업은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들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 지원을 통해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상대국 국민간의 교류를 통해 대개도국 우호협력관계 및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공공외교의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우리 인재 파견을 통해 전수되는 콘텐츠(태권도, 한국어 교육 등 문화적 콘텐츠 포함)와 노하우(기술적인 스킬 등) 및 경험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양 국민간의 교류 및 교감 증대를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과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격제고 및 국가이미지 강화와도 연계될 수 있다.

특히 해외봉사단과 자문단의 경우, 활동 특성상 상대적으로 현지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에서 ‘상대국 국민의 마음을 얻고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외교의 매우 좋은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봉사단, 자문단을 포함하여 인재양성사업 전반에 걸쳐 파견자 선발 및 교육 시 다양한 역량 부문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고 있는데, 향후 공공외교 측면에서 지원자 및 선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함양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커리큘럼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봉사단 및 자문단 개개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글로벌 역량/세계시민역량 제고 차원에서 공공외교 관련 소양증진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글로벌연수사업

일반연수와 석사학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글로벌연수사업은 협력대상국과의 파트너십 강화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 한국에 우호적인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개발도상국의 국가발전에 기여할 인적자원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고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과정 진행을 통해 무형의 지식을 전파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으로 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 전수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환경 조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수 과정에 포함된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정치, 경제, 역사, 문화, 과학, 예술, 기술, 스포츠 분야 등을 포괄하고, 간담회, 전시, 공연, 세미나, 연회, 박람회 참가 등으로 다각화하여 문화·지식·공공외교를 통합적으로 융·복합시킨 커리큘럼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석사 학위 과정의 경우 한국어 혹은 한국학 과정과 복수학위(dual degree)로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외 연수 과정 운영 연장선상에서 KOICA 과정 수료 연수생의 경험을 활용하여 직접 현지에서 한국에 대해 알리는 강연 등을 확대 실시하는 것도 지식 확산 및 인지도 제고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최근 모로코에서 진행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관련 지식 확산 강의를 KOICA 한국어 문화 전문가 양성 과정 수료생인 현지인의 시각에서 진행되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 국별협력사업

국별협력사업의 경우 보통 컨설팅,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개발 등의 요소를 사업 내용에 따라 적절히 혼합하여 이행되는데 공통적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지식 전파, 정책자문 및 제도구축을 통한 정책·지식 공공외교로서의 역할을 하며,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역사, 전통, 발전상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에 기여 가능한 사업이다. 특히 문화ODA 국별협력사업의 경우 문화 공공외교의 요소도 포함한다.

사업 주제에 따라 교육, 보건, 농촌 및 지역사업 등 지역주민들이 좀 더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사업과 함께 기후변화, 에볼라 대응, 에너지 분야 등 우리의 과학/기술력이 바탕이 되는 사업의 경우, 한국의 기술력과 함께 주요 국제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로도 제고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각 국가지원계획(CP)을 중심으로 사업 분야별로 우리 개발협력의 가치와 목표를 좀 더 뚜렷하게 제시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

□ 민관협력사업

시민사회협력사업은 정부와 시민단체,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포괄적인 파트너십 구축 및 민간의 인적자원, 지적 자산, 기술, 사업역량, 재원을 활용하여 협력대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완화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국민참여형 국제개발협력 사업이다.

시민사회협력사업은 정부 간 사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현지 주민친화형 개발협력사업으로 좀 더 밀착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특성과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함께 참여하는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공모접수 절차 및 수행 과정에서 공공외교 관점을 내재화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볼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시민의식을 더욱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도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탄자니아 다레살렘에서 진행된 본부-사무소간 공동 주최로 열린 탄자니아 민관협력 현장 파트너십 활성화 및 역량강화 세미나와 같은 행사는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다른 민관협력사업의 예인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등 혁신적 개발협력사업 역시 CTS 참여 기업들의 혁신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제품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협력대상국 내 국민들이 활용하면서 한국에 대한 인상과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 제고와 더불어 한국이 선진과학기술을 보유한 국가 등의 이미지 강화하고 정착시켜 국가 브랜드 제고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향후 사업을 통해 전달되는 우리 기술이나 제품이 한국의 기술임을 인지할 수 있는 요소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KOICA 해외 사무소가 소재한 협력국 대상 행사

KOICA 해외 사무소를 중심으로 사무소 소재 국가 및 중점협력국의 경우, 문화행사 등 공공외교 행사 개최에 있어서 KOICA를 통한 다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2019년 4월 페루 KOICA 사무소, 한국대사관, 그리고 현지 대학과 협력하여 개최된 ‘Korea Raymi’ 행사는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해 페루 현지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해 향후 해당 협력대상국과의 사업 이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국민참여형 활동

현재 KOICA가 운영 중인 위원회 제도는 분야별 외부 전문성 활용하고 관·산·학·연 및 시민사회 출신의 다양한 파트너와 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또 다른 형태의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국민서포터즈, 국제질병퇴치기금 국민참여단 등의 활동들 역시 국민 참여 확대 요

구에 부응하고 강화할 수 있는 사례가 된다. 일반 국민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KOICA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고, 특히 SNS를 매개로 직접 협력대상국 주민들과 소통과 공유의 창구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직접적으로는 KOICA의 개발협력활동 전반, 더 나아가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 주요 정례 회의, 포럼 및 행사

국내외에서 KOICA가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하여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회의, 포럼과 같은 행사의 경우,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공유하는 장으로, 이를 통해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대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행사에 우리 협력대상국을 포함, 주요 국내 외교사절단 및 학계, 언론, 비즈니스 등 다양한 인사들도 다수 참가한다는 점에서, 국내외 ODA 현안 공론화 및 관심을 확산하고, 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 환경을 조성하는 장의 역할도 할 수 있다.

2019.11월에는 주한 외교사절단, 코이카 글로벌연수사업 파트너기관, 지역 코이카 동창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아시아 친선의 밤(Korea-Asia Friendship Night)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동 행사는 일반연수과정과 함께 코이카 연수생 동창회를 연계한 것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공공외교 인프라 강화,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에의 기여 등의 차원에서 향후 규모나 행사 내용 측면에서 충분히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행사이다.

21세기 공공외교의 개념이 그 대상에 있어서 자국민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SDG 캠페인과 같이 개도국 주민들을 직접 대상으로 진행한 행사 뿐 아니라 국민적 이해증진 및 관심·참여 유도 측면에서 국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협력주간 행사, SDG 캠페인, 개발협력역사관, 지구촌체험관 운영 등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반 활동들 역시 공공외교 증진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협의체 운영

2018년 12월 ODA 분절화 해소 및 정부의 통합적 융합 ODA 프로그램 추진 논의를 위한 협업 플랫폼인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회(이하 국사협)가 발족되어 운영 중에 있다. 국사협의 1차적인 기능은 ODA 분절화 경감 및 개발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융합 ODA 추진이지만, 'ODA Team Korea' 체계 구축 및 확대발전 차원에서 ODA 활동을 기반으로 통합적 ODA 추진하여

가시성 제고에 기여하는 등 공공외교 인프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지역 국제개발협력센터 운영지원

지난 10월 대구국제개발협력센터 개소 등 KOICA는 지금까지 대학, 공공공단체들과의 연대 협력사업 강화를 위해 인천, 강원, 전북, 제주 등의 지역에서 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지역 주민과 기관대상 ODA 교육, 신규사업 발굴, 사업수행 컨설팅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국제개발협력센터 운영지원은 KOICA-지자체-대학 간의 공공외교 인프라 강화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 대한 ODA 인식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향후 관계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각 지역 및 지역시민들에 특화된 프로그램 발굴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4. 향후 제언점

지금까지 기 수행중인 KOICA의 주요 사업 및 활동을 중심으로 공공외교 연계성 강화 및 내재화 방안을 살펴보았다면, 향후 제언점에서는 전략 및 홍보, 그리고 네트워크 강화 및 파트너십 구축 차원에서 새롭게 고려해 볼 수 있는 제언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공공외교 관점을 내재화한 전략적 방향성 지향

앞서 살펴본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주요 공여국의 경우 국익 증진 관점에서 개발협력과의 연계성을 전략 및 정책문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공공외교와 개발협력간 공통적인 속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ODA 수행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공공외교를 증진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익에도 기여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국익과 연계된 ODA활동 수행이 아니라, 국민 대 국민간의 교감 증진 및 공감대 형성, 그리고 국민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체가 더불어 참여하는 등 좀 더 보편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달성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상기 관점을 지향하는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향후 기관 전략에 ‘국민 대 국민간의 소통 증진’이나 ‘국민 참여’ 개념을 반영한 전략 방향성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 협력국 대상 주한외국공관 공관장과의 간담회

개발적인 면담 진행과는 별개로 KOICA 협력국을 대상으로 지역 차원의 협력강화 및 국내 외국인 대상 정책공공외교 활동 강화 차원에서 주한외국공관 대사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해보는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정책 전반 및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협력국의 이해와 지지를 제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KOICA 브랜딩 및 주요 활동에 대한 홍보강화

시각적 측면에서 KOICA 로고로 대변되는 KOICA 브랜드는 단순히 기관의 마크 기능 뿐 아니라 압축적으로 기관이 추구하는 가치와 원칙 등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USAID의 경우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rom the American People’이라는 메시지를 부가적으로 추가하여, 원조 활동은 결국 공여국의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원조활동이 실질적으로는 국민 대 국민간의 소통과 교류라는 친근한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DFID 자체의 로고는 아니지만 유사하게 영국 국민을 포함한 태그라인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KOICA의 4가지 영문로고 중에서 KOICA가 한국 기관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마크는 월드프렌즈코리아와 지원물자 공여마크 정도이다. KOICA의 대표 로고인 한국국제협력단 영문 버전의 경우도 하단에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로 병기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가시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각 기관 공식 홈페이지

KOICA도 시각적 로고와 함께 추가적으로 한국 국민들의 마음과 기여를 상기시키고 나아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참신한 내용의 태그라인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KOICA 뿐 아니라 공여국인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로, 수원국에 기여하는 ODA 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KOICA 활동의 본질은 ODA 추진에 있기 때문에 KOICA가 협력대상국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관리를 더욱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현재 ODA KOREA 통합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KOICA 차원에서도 협력 대상국별로 KOICA의 활동 및 기여 현황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공공외교 촉진 차원에서 KOICA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사업 및 활동 내용은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공공외교 관점에서 다각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KOICA의 주요 활동은 향후 공공외교를 촉진하고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특히 KOICA 본연의 ODA 활동을 수행하면서도 개발협력 맥락에서 공공외교와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통해 공공외교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상기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ODA 원칙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적절히 공공외교 촉진을 위해 공공외교를 재해석하고 그 요소를 내재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KOICA 브랜딩 및 홍보강화를 통해 KOICA와 한국의 브랜딩을 제고하고, ODA 활동을 통해 한국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KOICA 및 범정부 홍보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이 모색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태균. 2017.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에 대한 제안.” 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토론회 발제자료(2017.6.13.)

김상배 외. 2019. “지구화 시대의 공공외교.” 사회평론아카데미.

문현미. 2014. “강대국과 중견국의 공공외교 추진체계 및 사례 비교 연구.”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유병선. 2018.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전: 대전세종연구원.

이상호. 2009. “변화하는 미국의 공공외교 전략과 한미관계.” 서울: 시대의 창.

정혜영. 2014. “중국과 일본의 공공외교지역으로서의 베트남에 대한 양국의 ODA 정책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31(0): 193-231.

조셉 나이. 2002. “제국의 패러독스” 서울: 세종서적

한재광. 2017.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공약 평가”. 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토론회 발제자료(2017.6.13.)

Brown, John. 2002. “The Purposes and Cross-Purposes of American Public Diplomacy.” American Diplomacy

Brown, John. 2011. “Public Diplomacy: “Out“ for the U.S., “In“ Overseas?” https://www.huffpost.com/entry/public-diplomacy-out-for_b_788931 (접속일: 2019.11.19.)

Pamment, J.(Ed.) 2016. “Intersection Between Public Diplomacy & International Development: Case studies in Converging Fields,” Figueroa Press

Tuch, Hans. 1990. “Communicating with the World.” Palgrave Macmillan US

Zielinska, Karolina. 2016. “Development Diplomacy. Development Aid as a part of Public Diplomacy in the Pursuit of Foreign Policy Aims: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Historia i Polityka 16(23): 11-12.

Australian Aid. “Australia’s aid program.” <https://dfat.gov.au/aid/Pages/australias-aid-program.aspx>(접속일: 2019.11.19.)

House of Commons Foreign Affairs Committee. 2006. “Public Diplomacy: Third Report of Session 2005–06.”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0506/cmselect/cmfaaff/903/903.pdf> (접속일: 2019.12.19.)

JICA. “JICA Profile.” https://www.jica.go.jp/english/publications/brochures/c8h0vm0000avs7w2-att/jicapofile_en.pdf (접속일: 2019.12.18.)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Diplomatic Bluebook 2019.” <https://www.mofa.go.jp/policy/other/bluebook/index.html>(접속일: 2019.12.18.)

The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nd Commonwealth Affairs. 2006. “Third Report from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Session 2005–06.”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72296/6840.pdf (접속일: 2019.12.06.)

UKaid. 2015. “Tackling global challenges in the national interest.”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78834/ODA_strategy_final_web_0905.pdf(접속일: 2019.11.19.)

_____. 2018. “UK aid branding guidance.”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71876/UK-aid-branding-guidance-May-2018a.pdf(접속일: 2019.11.19.)

UK Parliament. 2006. “Measuring effectiveness and value for money.”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0506/cmselect/cmfaaff/1371/137110.htm> (접속일: 2019.11.19.)

USAID. 2018. “Joint Strategic Plan FY 2018–2022.” https://www.usaid.gov/sites/default/files/documents/1870/JSP_FY_2018_-_2022_FINAL.pdf (접속일: 2019.12.06.)

웹사이트

외교부. “공공외교 소개.” [http:// www.publicdiplomacy.go.kr/introduce/public.jsp](http://www.publicdiplomacy.go.kr/introduce/public.jsp) (접속일: 2019.12.19.)

『개발과 이슈』는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최근 연구 및 정책을 소개하여 국내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되는 비정기간행물입니다.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출처와 집필자 명시하에 인용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ODA전자도서관(lib.koica.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